

자료제공 : 2023. 1. 23.(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관리부장	안 병 희	3146-1601
--------	-------	-----------

계측관리과장	정 임 근	3146-1250
--------	-------	-----------

담 당 자	노 해 민	3146-1253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관련 누리집	https://arisu.seoul.go.kr
--------	---

서울시, 설 연휴 마지막 날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대응 '4단계' 발령

- 24일(화) 일 최저기온 영하15도 미만 이틀 지속 예상...동파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 계량기함 보온했어도 동파 발생 가능...야간 외출 시 수돗물 가늘게 흐르도록 조치
- 동파 신고는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다산콜(☎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 서울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화) 일 최저기온이 영하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24일(화) 오전 0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 ‘동파 심각’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예보제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 당초 시는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라 24~25일의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예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16~17도로 더 낮아짐에 따라 대응을 4단계로 격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영하15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동파 심각’ 단계에서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난겨울(’21.11.15.~’22.3.15.) 동파 대책 기간에 발생한 3,621건의 동파 중 11.4%에 해당하는 411건이 일 최저기온 영하15.5도였던 2021년12월26일 단 하루 만에 발생했다.
- ‘동파 심각’ 단계에서는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계량기함의 보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수도물을 오래 사용하지 않는 외출·야간 시에는 수도물을 가늘게 틀어 놓는 것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시민 참여 행동요령 ‘채우기·틀기·녹이기’ >



- 흘리는 수도물의 양도 중요하다. 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을 흘려주어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흘리는 수도물의 양을 서울시 가정용 수도 요금으로 환산하면 10시간 기준 약 130원 수준이다.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먼저 따뜻한 물수건(50~60℃)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어야 한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히려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동파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신속한 동파·동결 피해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 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에 1일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수도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대표번호 (관할지역)

중부수도사업소 ☎3146-2000 (중구·종로구·용산구·성북구)	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동부수도사업소 ☎3146-2600 (성동구·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
북부수도사업소 ☎3146-3200 (노원구·강북구·도봉구)	강서수도사업소 ☎3146-3800 (양천구·강서구·구로구)	남부수도사업소 ☎3146-4400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금천구)
강남수도사업소 ☎3146-4700 (강남구·서초구)	강동수도사업소 ☎3146-5000 (송파구·강동구)	

-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수도물을 가늘게 틀어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서울시도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한 동파 신고 접수와 복구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동파-매력
동파-예방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채우기

수도계량기함 내부를 헨옷으로 채우고
뚜껑 덮기 전 비닐로 밀폐

틀리기

혹한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기

녹이기

30~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부터 천천히 해동
50도 이상 뜨거운 물, 토치, 헤어드라이기 사용 금지

계량기 동파 시, 120 다산콜재단 · 지역 수도사업소 · 아리수톡으로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파·배격 특별시서울

아리수

· 신청·배부 : 관할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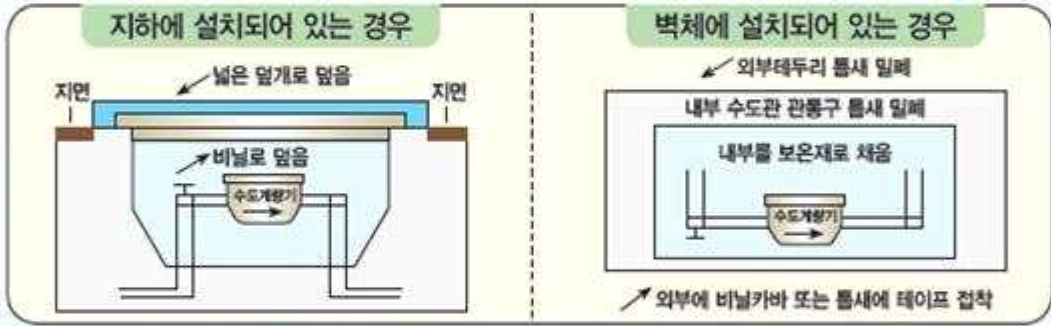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계량기를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을 보내세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1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2 계량기함(통) 내부를 에어캡,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3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4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도물을 '졸졸' 흘려준다.
 - 0℃ ~ -10℃ : 45초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 -10℃ ~ -15℃ : 33초안에 1회용 종이컵에 다 채울 수 있는 정도

수도계량기(수도관)가 얼었을 때

- 1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50℃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수도계량기 동파 시 교체비용 부과 안내
 - 관리소홀, 보온미조치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 부과

계량기 동파 신고 다산콜재단☎120

모바일로 24시간 민원신청 가능한 '아리수톡' 챗봇 상담
 (카카오톡 '상수도' 검색 -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 '아리수톡' 시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